



비즈 패트를 | 금융감독원, 역외보험 소비자 정보 '주의' 발령

연 7% 배당? 보험료 1억 내면 40억 준다고?

홍콩보험 등 온라인 불법광고 기승
모집인 통해 가입돼 과태료 1천만원
소비자보호 대상 안돼 피해 우려

온라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홍콩보험과 해외달러연금보험 등으로 소개되고 있는 역외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의

국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온라인 광고를 들여다보면 '연 5~7% 연복리 고배당 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 원, 총 인출금액 40억 원' 등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문구가 대부분이다. 외국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금감원에게 광고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또 온라인 광고에는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등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안내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약관과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돼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역외보험은 국

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온라인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측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이통 3사 '패스', 공인인증서 빈자리 공략 경찰청과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추진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통합 브랜드 '패스'(사진)가 공인인증서의 빈자리 공략에 적극 나선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패스 가입자는 2018년 7월 브랜드 통합 후 빠르게 증가해 지난 2월 2800만 명을 돌파했고, 6월 중 3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앱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패스 인증서' 인증 건수 또한 연초 대비 6배 가량 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실물 운전면허증보다 편리하고 보안성도 강화한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사설인증서 기반 비대면 계좌 개설과 자동이체 전자서명, 보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정적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혈압뿐 아니라 심전도도 측정... '손목 위 주치의' 시대 열리나

삼성, 심전도 측정 앱 정부 허가 취득
'갤럭시워치'로 부정맥 등 분석 가능
3분기 내 출시...구글 애플 등과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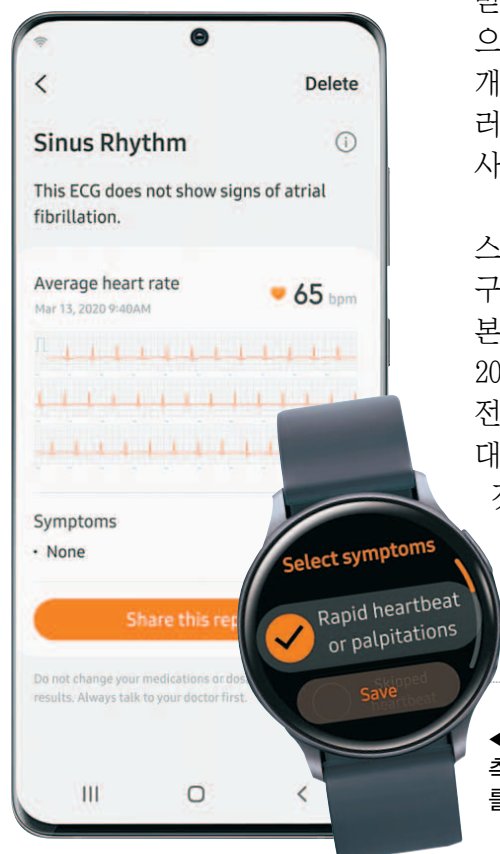
'손목 위 주치의' 시대가 열릴까.

최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혈압과 심전도 등을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연이어 정부 허가를 받으면서,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산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심전도(ECG) 측정 앱을 허가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앱은 갤럭시워치 센서 기술로 심장 전기 활동을 분석해 동리듬과 심방 세동을 측정하고 분석·표시해 준다. 앱을 열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팔과 손을 평평한 표면에 올려놓은 뒤 반대쪽 손의 손가락 끝을 30초가량 스마트

워치의 상단 버튼에 가볍게 올려놓으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심방 세동은 흔한 부정맥 질환 중 하나지만 많은 환자들이 무증상으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혈전, 심부전, 뇌졸중 등을 포함한 합병증 위험을 크게 높인다. 삼성전자는 앞서 4월 혈압 측정 앱 허가도 받았다. 컵 혈압계로 기준 혈압을 측정해 측정값을 입력한 뒤 스마트워치의 심박센서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에서 측정된 맥박파형을 기준 혈압과 비교 분석해 혈압·맥박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준 혈압은 매 4주마다 컵 혈압계를 통해 보정해 주어야 한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허가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삼성전자의 심전도 및 혈압 측정 서비스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3분기 내 출시 계획이며, 관련 센서가 내장된 '갤럭시워치 액티브2'와 향후 관련 기능을 지원



하는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 받으면 스마트워치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할 바 있다. 최근엔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의료기기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첫 사례도 나왔다.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다툼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경우 2018년 출시한 애플워치 4세대에 이미 심전도 측정 기능을 넣었고, 올해 선보일 6세대 제품에는 건강 관련 기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모회사 알파벳을 통해 지난해 말 웨어러블 기기 제조회사 핏비트를 인수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삼성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전도 측정 앱 허가를 받으면서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 삼성전자



"VR로 카트라이더 응원" ...SKT-넥슨, 협력 강화

SK텔레콤과 넥슨이 협력을 강화한다. SK텔레콤은 '2020 SKT 점프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 결승전을 생중계한 '점프VR'내 소셜룸에서 '아바타 응원전(사진)'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결승전이 열린 23일 가상공간 점프VR 소셜룸 내에는 수십 개의 카트라이더 방이 만들어졌다. 아바타 관객들은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공간에 모여 응원팀을 외치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뜨거운 열기를 쏟아냈다. SK텔레콤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게임 분야에서 이어오던 넥슨과의 '초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신작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공동 마케팅 협력을 본격화했고, 카트라이더 인기 캐릭터인 '다오'와 '배찌'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해 개발한 '크레이지월드 VR'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남자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주사시술~!!

주사시술 만으로 간단하게 복합확대가능!

10분 정도의 간편한 시술!!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

◆ 세계적 의료기업 콜로플라스트 2년 연속 초청으로 런던, 미국 글로벌 학술대회 masterclass연수

늘푸른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은 다년간 조루증 치료에 전념하였으며, 오랜 해외 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학식으로 조루증 치료에는 귀두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귀두 확대가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이용하여 귀두와 음경에 캡슐형 히알론산을 주입하는 확대술이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비수술적확대법이며

이는 주사로 간단하게 필러를 음경과 귀두에 주입하여 확대시키는 간편한 시술법이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확대되는 효과와 동시에 귀두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사정이 지연되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나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 130108-중-38478호



- ▶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 ▶ 시술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 ▶ 성관계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
- ▶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늘푸른비뇨기과의원 02) 2272-5588 / www.egclinic.co.kr
종로3가역 14번출구앞 6층